

호남 인사 대통령실 '전진 배치'... 장관 인선도 주목

장흥 위성락 안보·보성 황인권 경호처장
무안 출신 김용범 前차관 정책실장 발탁
AI미래기획수석 신설...광주 AI 청신호
각 부처 장·차관 인사도 지역민 기대감 ↑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요직에 호남 출신 인사를 전진 배치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배제됐던 호남 인사들이 향후 각 부처 장관 인사 때 증용될지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인 지난 4일부터 내각 및 대통령실 참모 주요 인선안을 발표하며 새 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내각 인선에서 호남 인사로는 대통령실 초대 안보실장에 장흥 출신 위성락 국회의원이, 경호처장에 보성 출신 황인권 전 육군 사령관이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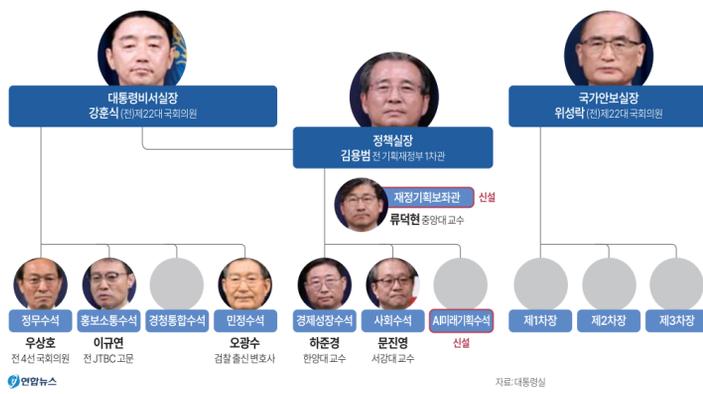
각 이름을 올렸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외교부 출신의 대표적 북미·북핵통이자 주러시아 대사 등을 역임한 러시아통이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외교안보보좌관으로서 실용외교 전략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군내 작전 및 교육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2020년 예편 뒤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이어 지난 6일 발표된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에도 호남 인사가 포함됐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는 무안 출신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됐다. 김 정책실장은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준비위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등을 지낸 경제·금융 분야에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 현황



문재인 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으로 중용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는 게 여론의 평가다.

당초 정책실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물망에 올랐으나 인선 과정에서 다수의 호남 인사들이 '김용범 카드'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AI(인공

지능)미래기획수석실'을 설치했다. AI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 주도로 AI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이 대통령의 AI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광주의 AI 관련 현안이 새 정부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의 내각·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대해 이 대통령의 호남 배려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향후 장·차관급 추가 인선 시 호남 출신 인사의 증용 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만큼 각 부처는 차관 인선을 먼저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처 장관직에서 호남 출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인사 출대를 받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호남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문진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5일 도청 동부지역본부 나철실에서 안전치안 점검 화상회의에 참석,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신축·지방하천 국가 지원 확대해달라”

李대통령, 첫 안전치안 점검회의
姜시장,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요청
金지사 “배수영향구간 지정 국가 관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각각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신축과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5일 화상회의로 열린 이

대통령 주재 첫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2천명이 휴직 중”이라며 “급여의 70%는 지급되고 있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주시도 사고 수습을 위해 민·관 합동 TF를 운영 중이나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장 신축을 위해 산업은행과 산업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강 시장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무안 국제공항 재개항이 늦어지고 있어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광업계 또한 고사 위기에 놓였다”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이) 국토부 소관이나”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는 줄었으나 자살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문자

글자 수 확대(90자→180자) 등을 요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강력 요청했다. 김 지사는 “대규모 홍수 피해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 영향 구간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정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정비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국가하천 지정 요건이 충족된 21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76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으로 지정해 국

가가 직접 관리·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 고령자 안전 강화, 농산어촌 지역 재난관리 체계 정비 등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정책을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예측 가능한 사고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재정·변문진기자

Advertisement for 'Gureo Gohang-sarang' (구례 고향사랑) donation program.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program's purpose (supporting local economy and infrastructure), donation methods (online and offline), and benefits (tax deductions, etc.). It also features a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ureo-gun.